



빈센트 붐 벽화거리.

장성군, 이야기 있는 벽화거리 2차 조성

장성역~장성성당 인근 8월 준공 목표

오는 8월 장성군의 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 노후된 담벼락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주말, 부담스럽지 않은 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장성군은 2차 스토리 월아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6월에 착공해 8월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구간은 장성역에서부터 매일시장을 거쳐 장성성당 인근까지 이어진다.

장성군은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 스토리 월아트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성읍내 매일시장 일원과 장성경찰서 골목길에 벽화 3점과 그림 24점, 안내판 1점을 설치했다. 조성사업의 주제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었다.

장성군과 빈센트 반 고흐와의 인연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선6기의 출범과 함께 장성 황룡강에서 '노란색'이라는 모티브를 얻어 지자체 최초의 컬러마케팅을 기획했다. 이후 장성군은 '해바라기' 등 강렬한 노란색을 사용해 수많은 명작을 남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장성군과 접목해 '장성 빈센트의 봄' 축제를 개최했다. 주민 주도형 축제인 장성 빈센트의 봄은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축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5회 째를 맞은 지난 4월 13일~14일 이틀 동안 만여 명의 방문객이 장성군을 찾았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골목길은 축제 기간 내내 '포토존'이나 다름없었다. 장성경찰서 뒷길은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였다. 장성군은 여기에 착안해 2차 스토리 월아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 스마트특성화 사업 선정

미래 먹거리 '광·의료산업' 고도화

2022년까지 연구개발 센터 등 추진
"광융합 허브도시로 발전시킬 것"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광산업과 의료산업이 스마트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고도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시는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과 '생체의료산업 보유기반 연계를 통한 수출지향형 고도화' 사업 등 2개 사업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국가전략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연구개발(R&D) 지역거점센터 설립 또는 기존 연구개발(R&D) 지역거점센터의 장비구축 등을 통해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합산업 고도화' 사업은 23년 간 총사업비 86억원(국비 60억원)을 들여 추진하게



광주광역시청 전경.

된다.

특히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지역 혁신기관을 활용해 ▲시설 및 장비 고도화 ▲혁신기관 인프라 종합정보망 및 공동활용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화 및 현장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을 시행한다.

'생체의료산업 보유기반 연계를 통한 수출지향형 고도화' 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95억8000만원(국비 60억원)을 들여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지역 연구개발(R&D)거점센터를 활용 ▲생체의료 인프라 DB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 ▲시설 및 장비 고도화 ▲인증지원 등 사업

화 지원 ▲전문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광 관련 기업이 광융합산업으로 지속성장하도록 제품 고급화에 필요한 연계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1개의 광융합 전문중소기업 창출, 고용창출 1만명을 목표로 생체의료산업 보유기반을 수출 지향형 산업으로 육성한다.

광주시는 사업 시행으로 2023년까지 수출액 2억2000만달러, 기업수 780개, 고용 창출 5000명을 달성해 동남아 의료소재부품 거점도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융합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과 "의료산업 통합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룬다면 지역산업의 선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관련 산업을 집적화, 고도화, 다각화해 광주를 광산업과 의료산업을 연계한 광융합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보해복분자주, 韓 와인으로 이름 알린다

유럽·아시아 시장 수출 판로 개척

보해양조 대표 제품인 '보해복분자주'가 유럽과 아시아 시장 수출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19몬테레이 국제 와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보해복분자주가 'Korea No.1 와인'으로 전 세계에 소비자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해양조는 보해복분자주 5천본을 벨기에에 수출한다.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로 와인소비량이 많은 유럽시장에 판매지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입전문업체 신라커머스를 통해 벨기에 시장에 진출한 보해는 복분자주와 함께 매추순과 잎새주 등 주요 제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어서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해복분자주에 대한 관심은 유로존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보해복분자주는 지난 2007년부터 프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와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보해복분자주가 벨기에와 네덜란드 시장에 수출을 확정했다.

랑스에 수출되면서 'Korea No.1 와인'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유럽에서 보해복분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업체들은 프랑스에 수출된 제품을 다시 수입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이번 벨기에 수출 역시 프랑스에서 보해복분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것에 주목한 업체가 먼저 제안해서 이뤄지게 됐다. /전남=봉채영 기자

익산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4개 선정

중앙·매일·서동시장 4년 연속 쾌거
7개 전통시장에 18억원 국비 지원

익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4개 부문 사업이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중앙·매일·서동시장은 2016년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으로 지난해까지 3년간 17억여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성과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에 연속 선정되면서 9억 2000만 원을 확보해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이윤형 함평군수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매일·서동시장은 기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영 현대화사업이 더해져 명품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매일시장이 선정되어 21억 원을 확보했다.

서동시장은 주차장 개보수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금마·남부·함열·황등 시장 화재알림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7개 전통시장에 총 32억 원의 사업비 중 1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익산의 전통시장이 다양한 현대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확보를 통한 첨단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사진)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과 대형마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

함평군,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

군민 대상 오는 7월부터 신청 접수

전남 함평군이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약 6개월간의 검토 끝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군은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받고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실제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족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



이윤형 함평군수

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며, 올해는 하반기(8월, 11월)에만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인천시

실내공기질 '라돈 컨설팅'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Rn)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라돈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절차는 우선, 시민이 주민센터에서 간이 측정기를 대여 받아(무료) 매뉴얼에 따라 측정한 후, 그 결과가 200 Bq/m³ 이상 300 Bq/m³ 미만이면 군·구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재측정을 실시하고, 300 Bq/m³ 이상의 고농도일 경우의뢰인 요청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밀측정을 실시한다. 정밀측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라돈저감관리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며 방출원 배제 및 차폐법(특새막음) 시공 등의 개선조치 후 요청시 정밀측정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0일(금)
음력 : 4월 6일

수도권 날씨
26~1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8 | 해질 / 19:30

연천 7/27, 동두천 8/27, 가평 6/28, 파주 8/25, 서울 12/26, 양평 8/27, 용인 10/26, 평택 7/26, 인천 12/22, 수원 10/26, 백령도 10/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